

교회안내

■ 명칭 | 뉴욕예일장로교회

■ 표어 | 예수님 제일 (마 16: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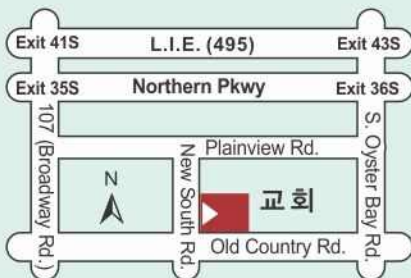
■ 실천목표

- ① 영감있는 예배
- ② 십자가 사랑의 교제
- ③ 땅끝까지 복음전파
- ④ 천국일꾼 훈련양성
- ⑤ 이민가정의 치료
- ⑥ 능력있는 기도생활

정기모임 안내

집회	시간	장소
주일 예배	1 부 예배 오전 7:30	본당
	2 부 예배 오전 9:00	본당
	3 부 예배 오전 11:00	본당
	영어 예배 오후 1:00	본당
	주일찬양예배 오후 2:30	본당
수요 예배	오후 8:3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본당
목장모임	오후 8:30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각 목장
제자훈련	화, 목요일 오후 8:30	교육관
새벽이슬회(청년)	금요일 오후 8:00	새벽이슬회실
주일학교	영아부(3세미만) 주일 오전 11:00	영아부 예배실
	유치부(3~5세) 주일 오전 11:00	유치부 예배실
	유년부(1~6학년) 주일 오전 11:00	유년부 예배실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실
	중고등부 금요모임 오후 7:30	중/고등부 예배실
SILVER CLUB	목요일 오전 10:00~오후 2:00	친교실
MOMMY & ME	금요일 오전 10:00~11:30	유치부 예배실
뉴욕예일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00~오후 12:00	교육관

교회 오시는 길



플러싱 방향에서 오시는 길

I-495 Exit 43으로 나오셔서 신호등에서 우회전 또는 Northern State Pkwy Exit 36S로 나오시면 S. Oyster Bay Rd.로 연결됩니다. Old Country Rd.를 만나 우회전 하시면 우측편에 교회가 보입니다.

롱아일랜드 East 방향에서 오시는 길

I-495 Exit 43으로 나오셔서 신호등에서 좌회전 또는 Northern State Pkwy Exit 36S로 나오시면 S. Oyster Bay Rd.로 연결됩니다. Old Country Rd.를 만나 우회전 하시면 우측편에 교회가 보입니다.



해외한인장로회

뉴욕예일장로교회

YAL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NEW YORK

“예수님 제일이신 교회”



담임목사 김종훈

Senior Pastor: Rev. Jong Hoon Kim, D.Min

17 New South Rd., Hicksville, NY 11801
Tel. (516)938-0383 (C) Fax (516)938-3824
www.yalechurch.org

주일에배순서

제30권 2호 주후 2022년 1월 9일

Vision 2022 - 이벤젬리즘 마치(Evangelism March)

예배시간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30	3부 오전 11:00
인도자	김중훈목사		
신앙고백 Confession	다 같이		
찬송 Hymn	324장, 436장		
기도 Prayer	박진두집사	박재우장로	지재홍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단(Dan) 6:10-18		
찬양 Anthem	글로리아	글로리아	할렐루야
말씀 Sermon	기도가 보호합니다 김중훈목사		
찬송 Hymn	630장		
봉헌 Offering	다 같이		
환영과 소식 Announcement	인도자		
*찬송 Hymn	635장		
*합심기도 Pray Together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중훈목사		

*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Please be standing)

*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셀 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설교	다음주일기도	1부 안강철집사	2부 정수영장로	3부 김음호장로
		KRB FM 87.7(라디오)	매주 화요일 오전 6:30~7:00	
		Cablevision Ch.1156 (텔레비전)	주일 오후 9:00-9:30 (재방송, 월요일 오전 7:00-7:30)	
		Direct TV Ch. 2092 (텔레비전)	주일 오후 8:30-9:00 (재방송, 월요일 오전 9:30-10:00)	
		CSN(www.csnv.net)		주일 오후 8:40 본방송 (재방송, 화요일 오전 9시)

금주의 기도제목

1. 담임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
2. 교회학교/목장/선교회/사역부서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3. 환우, 선교사, 선교지, 방송선교를 위해
4.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지켜 주시고, 성령충만으로 새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지난주일 설교요약

본문: 사(Isa)60:1-3 ; 행(Acts)3:1-10

제목: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영어로 1월을 'January'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로마 신화에 나오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신인 'Janus'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 신은 한 쪽 얼굴로 지나간 해를 바라보고, 또 다른 쪽 얼굴로 다가오는 새해를 바라봅니다. 1월은 지나간 해를 회고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전망한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입니다.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나간 세월을 회고하면서 긍정적인 의미를 찾기보다 부정적인 기억을 되살리기 쉽습니다. 특별히 지난 연말부터 확산된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새해를 맞는 우리의 마음을 희망보다는 두려움으로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지나간 과거를 잊는 축복이며, 다른 하나는 미래를 모르게 하신 축복입니다. 과거를 다 기억한다면 과거의 불쾌감, 실패, 상처, 죄책감이 우리를 미치게 만들 것입니다. 잊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아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몰라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모든 것이 변하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축복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입니다.
[이사야의 말씀]

오늘 본문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포로라고 하는 패배의식에 얽매 있던 백성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백성은 바벨론의 칼 앞에 속수무책이었고 결국 포로로 낯선 땅에 끌려갔습니다. 70년이라고 하는 지루한 포로생활은 저들에게 패배의식 속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여호와와 영광이 그 백성위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포로 생활하는 자들에게 빛(공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주저앉아 있는 포로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어두운 땅에, 캄캄한 가운데 있는 만민에게 비치라고 하십니다.

일어날 형편이 못 되어도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때문입니다.

1)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갈 것을 같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사 40:31)

2)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 41:10).

3)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사 43:19).

그것은 비워야 채워집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가정, 직장, 신분, 건강, 교회에 길이 나고 강이 흐를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힘 있게 새해를 출발합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왜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받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려는 계획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

나면서부터 건지 못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의해 매일 성전 때문에 나와 구걸하고 있었습니 다. 오후 세시 기도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그를 봅니다. 무엇을 얻을까하는 그에게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예수 이름에 구원, 치유,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일어설 수 없던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패배의식의 신앙, 습관적인 신앙, 의존적인 신앙, 던져주는 동전 몇 푼에 관심을 두던 신앙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는 일어날 형편이 못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70년째 포로생활하고 있다고, 40년째 앓은뱅이 신세로 있다고 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빛을 발하라고 하십니다. 새해는 일어날입니다. 그리고 빛을 발합니다. 할렐루야!

목장이야기

사랑선교회

할렐루야! 2022년도 사랑선교회 임원으로 회장에 한대영장로님, 부회장에 오현섭장로님, 총무에 채석기집사님, 서기에 정현아권사님, 회계에 이영희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지난 성탄절에 임원들은 성탄절 선물과 떡을 회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원래는 성탄 만찬을 계획했으나 갑작스런 오미크론 여파로 떡으로 대체해야만 했습니다. 새로운 회원 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원했으나 다만 담임목사님과 사모님을 모시고 성탄기념 사진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사랑선교회는 주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굳건하게 뿌리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이기를 힘쓰는 선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일 찬양예배

온라인 예배 가이드

- * 핵심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던 때처럼 동일하게 예배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 1. 아침에 일찍 일어나 예배드릴 마음의 준비를 한다.
- 2. 예배 전에 씻고 아침을 먹는다. 식사하면서 예배드리지 않는다.
- 3. 교회 갈 때처럼 예배에 적절한 옷으로 갈아입는다. 옷을 대충 입으면 마음도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 4. 십일조 및 헌금을 준비한다. 교회에 우편으로 보내실 분은 우편봉투에 넣어 예배시간에 드린다. Venmo를 사용하는 분들은 예배 전에 미리 다운받아서 헌금시간에 맞추어 헌금한다. 주중에 교회에 들러서 헌금하실 분들은 부목사실에 있는 헌금함에 넣는다.
- 5. 예배시간(2부 9시 30분, 3부 11시)전에 교회 홈페이지에 가서 온라인 예배를 클릭한다.
<http://www.yalechurch.org/live-stream-sermon/>
- 6. 동시통역: 3부 예배(11시)에 동시통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We provide simultaneous interpretation of sermon in English (11am service).
Join Zoom Meeting: Meeting ID: 871 2789 7718 Passcode: 1234
<https://us02web.zoom.us/j/87127897718?pwd=dTFkMG1XN3E2MnBkUTMyUUJFdTBsZz09>
- 7. 다음을 숙지하여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
 - a. 발을 테이블에 올리지 말고, 예배당에서처럼 바르게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 b. 아이들은 부모 옆에 앉고, 예배 중에 돌아다니지 않도록 지도한다. 자녀들에게 참용성 있게 앉아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좋은 기회로 삼는다.
 - c. 설교 및 찬양 시간에 서로 질문하는 것이나 잡담은 피한다.
 - d. 인도자의 인도에 따라 동일하게 일어나고 함께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한다.
 - e. 목사님의 축도가 끝나고 예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예배에 참여한다.
 - f. 예배 후에 주어지는 적용질문을 가지고 가족이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는다.

수요 예배

오후 8시 30분	1월 12일
기 도	구 옥 자 권 사
말 씬	김 중 훈 목 사

새벽 기도회

오전 5시 30분	
말 씬	김 중 훈 목 사

주여 새벽에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봉사위원

다음 주 봉헌/안내위원 안내

1월 16일 주일예배	봉헌위원	안내위원
1부	안강철집사	바나바사역부 & 예배부
2부	정수영장로	바나바사역부 & 예배부
3부	김용호장로	바나바사역부 & 예배부
1월 19일 수요일기도	김순영권사	예배부

교회소식

예배

1. 모든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립시다.
2. 예배시간 안내: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30 3부 오전 11:00
*온라인예배는 2부, 3부에만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1. 예배 및 헌금 안내: 본당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스크 쓰기는 추후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계속해야 합니다. 모든 제약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예배는 지금처럼 현장예배와 온라인예배를 병행하게 됩니다만, 현장예배로 모이기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 ①1부 예배는 본당(현장)예배로 드려드립니다(온라인 서비스 없음).
- ②2, 3부 예배 및 CCM 예배는 본당 예배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
- ③수요예배와 새벽예배는 모두에게 오픈하고, 온라인예배 병행합니다.
- ④예배 전 헌금함에 헌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⑤교회 못 오시는 분은 우편 혹은 Venmo 이용

우편주소: 17 New South Rd. Hicksville, NY11801.

Pay to order: Yale Church or Yale Presbyterian Church.

Venmo: venmo@YaleKM, CCM Venmo는 @YaleCCM입니다.



2. 뉴욕노회 신년하례회: 오늘 오후 5시, ZOOM

3. 신년 제직회 안내: 오늘 오후 2:30, 본당

*제직회 후 위원회 부서별로 모입니다.

4. 12월 성경 통독 및 다독자 보고: 통독/51명, 다독/51명

*통독&다독자 상품은 지난해 목장이름으로 친교실에 준비되었습니다. 지난해

목장별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장년교육사역부).

5. 예결산 공동의회 안내: 1/16(주일) 2:30 pm (본 교회 등록 만18세 이상 세례교인)

6. 2022 강단 꽃 사랑의 식탁: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기념일, 생일감사등).

7. 뉴욕장신대 뉴욕캠퍼스가 2022 봄 학기부터 본 교회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강단 꽃 장식 및 사랑의 식탁

- 강 단 꽃: 김원배집사&심성실권사(아들생일)
- 사랑의식탁:

행사예고

- 1/16	예결산 공동의회
- 1/23	건축헌금 작성

QT본문

요일	일(9)	월(10)	화(11)	수(12)	목(13)	금(14)	토(15)
본문	요(Jn) 3:16-21	요(Jn) 3:22-36	요(Jn) 4:1-14	요(Jn) 4:15-26	요(Jn) 4:27-42	요(Jn) 4:43-54	요(Jn) 5:1-15

목양 칼럼

2022. 2. 153 기도운동

코로나바이러스는 대면 예배의 제한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리어 우리에게 참 예배에 대한 갈망을 주었습니다. 어려울 때 진실된 신앙의 의미를 찾지 않고서는 신앙인으로서 살아 갈 힘이 없기에 이 갈망은 참된 기도의 의미를 찾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신년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 다니엘의 구약기도 전통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신앙에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은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모험을 알면서도 하루 세 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단 6:10). 그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입니다. 아직 해가 밝은 시간에 기도한 것은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전 9시는 성전 문을 여는 시간이며 오후 3시는 성전 문을 닫는 시간입니다. 성전문을 열 때와 닫을 때 각각 번제를 드리는데 이것이 매일 드리는 상번제(Continual Offering)입니다(출 29:38-42; 민 28:3-4). 이 시간을 이용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부향함같이 매일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의미입니다(시 141:2; 계 8:3). 당시 경건한 유대인은 오전과 오후 이외에 정오에도 시간을 정하여 세 번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기 이후에는 솔로몬 성전 봉헌식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흠어진 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왕상 8:29-30). 다니엘의 기도는 이런 구약 기도의 뿌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약에 와서 이 구약의 기도 전통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던 시간이 제 삼시 즉, 오전 9시입니다(행 2:15).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킨 것은 제 구시, 즉 오후 3시 기도시간입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환상을 본 것은 제 구시, 즉 오후 3시 기도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큰 보자기 환상을 본 것은 제 6시, 즉 정오 기도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때가 제 삼시, 즉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시간이 제 구시, 즉 오후 3시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희생제물의 실제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기도할 때 견지 못하던 자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할 때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즉,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확장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처럼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로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살전 5:17). 그러나 기도는 배우지 않고는 할 수 없고, 훈련 없이는 하기가 힘들기에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본 것이 153기도운동입니다.

153은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 숫자입니다. 순종하며 그물을 내렸을 때 잡힌 물고기 수의 상징적 의미가 있기에 기억하기 쉽게 이 숫자를 이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1), 오 분(5), 세 번(3)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적 자원을 우리에게 끌어당겨 사용하는 통로입니다. 목숨 걸고 기도한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보호한 것은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기도는 우리와 우리 자녀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기에서 보호하는 힘입니다.

팬데믹 때 목장에서 성경일기를 카톡으로 장려하며 모든 목원이 성경일독을 한 사례 발표가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기도도 이렇게 하면 된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하루 세 번이 어려우면 하루 한 번으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기 때문입니다. 목장에서 목자와 목원들이 서로 서로 격려하면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막연히 기도하려면 힘이 드니까 기도문을 작성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기도하면 5분은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에서 배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자녀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문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팬데믹은 우리로 점점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로 접어들게 합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기도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보호합니다. 기도가 우리 교회를 보호합니다.